

수피아여중 '금빛 리바운드' ... 21년만 최강팀 등극

결승서 온양여중 62-58 완파
전력·자신감·지도력 '삼박자'
윤리중 이현서 광주양궁 4관왕
포기 않는 끈기·승부욕 빛나



광주 농구 여중부 21년만의 금메달과 양궁 첫 4관왕이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마지막 날을 빛냈다.

수피아여자중학교가 2001년 부산소년체전 이후 21년만에 금메달을 획득하며 피날레를 장식했고, 양궁에서는 윤리중 이현서(2년)가 광주 소년체전 역사상 첫 4관왕에 등극했다. 양궁은 2010년부터 4세부종목(30m, 50m, 개인, 단체)에서 6세부종목(30m, 40m, 50m, 60m, 개인, 단체)이 됐다. 소년체전 양궁 역사상 김제덕(경북일고) 이후 첫 4관왕이기도 하다.

◇수피아여중 농구 금메달
수피아여중은 21년만에 소년체전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수피아여중은 지난달 31일 경북 김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농구 여중부 결승에서 온양여중을 62-58(39-32 23-26)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001년 부산소년체전 이후 21년만의 금메달이다.

지난달 열린 2022연맹회장기 전국중고농구대회 우승팀인 수피아여중은 한해 최고 대회인 소년체전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농구 여중부 최강팀으로 등극했다. 연맹회장기도 2005년 이후 17년만이었으며 수피아여중의 4년만의 전국대회 우승이었다.

올해 수피아여중은 최고의 전력, 선수들의 노력, 그리고 이선영 코치의 지도력까지 더해지면서 21년만에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성과를 거뒀다. 이가협·박정서·송지후(이상 3년)·임연서·김사랑·양효정(이상 2년)·김담희·임세운·손세훈(이상 1년)이 합작한 우승이다.

이번 소년체전에서 1라운드가 관건이던 수피아여중은 예상과 달리 서울 숙명여중을 94-35(37-18 57-17)로 대파하면서 자신감을 가졌고 이어 인천 인성여중을 71-35(40-8 31-27), 울산 연암중을 101-53(55-33 46-20)으로 이기고 결승에 올랐다.

이선영 수피아여중 코치는 "첫 경기를 예상외로 쉽게 잡아내면서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졌다"면서 "8강, 4강 모두 중위권 팀들이



수피아여중은 지난달 31일 경북 김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농구 여중부 결승에서 온양여중을 62-58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사진 왼쪽). 윤리중 이현서는 광주양궁 첫 4관왕에 올랐다.



이현서는 "소년체전 첫 메달을 4관왕으로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있고, 결승전 상대도 이전 경기에서 이겨왔기에 자신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도 초반에 리드를 내주긴 했지만 진다는 생각은 안했다. 선수들도 눈빛이 살아있었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코트에서 물러나지 않았고 결국 승리했다"고 밝혔다.

◇윤리중 이현서 광주양궁 첫 4관왕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승부욕, 광주 양궁 사상 첫 소년체전 4관왕의 비결이었다. 윤리중 이현서는 지난달 31일 경북에서 막을 내린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양궁

남중부에서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양궁 역사상 첫 소년체전 4관왕이며 지난 2008년 광주소년체전에서 5관왕(체조) 이후 14년만에 나온 최다 다관왕이기도 하다.

60m와 5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현서는 개인전 올림픽리바운드를 치르면서 세번째 금메달을 차지했고 대회 마지막날 단체전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광주체육중 김성민(3년)과 박주혁(2년), 윤리중 배정원(3년)·이현서가 호흡을 맞춘 광주선발은 결승에서 충북선발을 6-0으로 꺾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을 차지했다.

이현서는 "소년체전 첫 메달을 4관왕으로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서는 "그동안 대회마다 4·5위만 해와서 올 시즌을 시작하면서 목표가 메달 한 개 따는 것이었다"면서 "사실 소년체전을 준비하면서도 단체전 메달만 바라봤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3관왕을 했기에 오늘 단체전을 앞두고는 후회 없이 쏘자는 생각이었는데 코치님도 잘 봐주셨고 형들이랑 힘을 합해서 금메달을 따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진화 기자



아웃 잡아내는 김하성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김하성이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방한 경기에 유격수로 출전, 1회 말 세인트루이스 놀란 고만을 태그하고 있다. 김하성은 3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고 샌디에이고는 세인트루이스에 3-6으로 역전패했다. /AP-연합뉴스

황선홍호 U-23 아시안컵 2연패 노린다

내일 말레이시아와 조별리그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아시아 정상 지킴기에 나선다.

한국 대표팀은 1일(한국시간)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에 출전한다.

C조에 속한 우리나라는 2일 타슈켄트 코모티프 경기장에서 말레이시아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른다.

이어 5일 밤 10시 같은 장소에서 베트남과 2차전을 갖고, 8일 타슈켄트 파흐타코르 중앙경기장에서 태국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벌인다. 한국의 조별리그 3경기는 모두 밤 10시에 kick오프한다.

16개 팀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나서 각 조 1, 2위가 8강에 올라 우승 경쟁을 이어간다.

AFC U-23 아시안컵은 2014년 창설돼 2년마다 개최되는 대회로 올해가 5회째다. 우리나라는 '디펜딩 챔피언'이다.

한국은 2020년 태국 대회에서 김학범 감독의 지휘 아래 처음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전까지는 2016년 카타르 대회 준우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1일(한국시간)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에 출전한다고 대한축구협회가 지난달 31일 밝혔다. 사진은 황선홍 U-23 감독. /대한축구협회 제공

승이 최고 성적이었다. 지난해 9월 U-23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황선홍 감독은 부임 후 처음 치른 공식 대회가 이번 대회의 예선이었다.

황 감독이 이번 대회에 참가할 23명의 선수를 확정해 지난 16일 발표된 뒤에는 주축 수비수인 이한범(FC서울)이 부상으로 낙마해 김현우(울산)를 대체 발탁해야 했다. 반면 당장 조별리그에서 맞붙게 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는 최근 막을 내린 동남아시아(SEA) 게임에서 나란히 1, 2, 4위를 차지한 뒤 이번 대회에 나서게 돼 조직력이나 경기력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다.

여러모로 녹록지 않은 처지임에도 황 감독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사표를 냈다. /연합뉴스

소년체전 폐막 광주·전남 희비

광주 15년 만에 금메달 22개
전남 예상밖 메달 큰폭 감소

지난달 31일 경북 일원에서 막을 내린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광주와 전남 선수단의 희비가 엇갈렸다.

광주는 금메달 22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25개 총 61개의 메달을, 전남은 금메달 15개 은메달 19개 동메달 23개 총 5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광주는 2007년 경북소년체전 이후 15년 만에 금메달 22개를 수확하는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으나 전남은 유도와 태권도 등 투기종목에서 부진하며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 내린 대회를 기억했다.

광주선수단은 단체종목에서 선전이 돋보였다.

검도 초등부 광주선발이 2연패 달성에 성공했고, 수피아여중은 21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했다.

개인종목에서도 선전이 잇따랐다.

광주체육중 신한승이 역도 3관왕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육상 높이뛰기에 출전한 광주체육중 윤준호도 광주 높이뛰기 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안겼다. 사격 공기권총에 출전한 광주체육중 박지민이 2관왕, 볼링 2인조 우산중 고민서·정운희도 깜짝 금메달을 선사했다.

효자종목 양궁은 이현서의 4관왕과 함

께 은메달 1개(여중 40m), 동메달 3개(남초 20m, 남중 개인전, 여중 개인전)로 실력을 입증했다. 레슬링은 광주체육중 박인성(F-51kg), 이태양(F-48kg), 이재혁(G-110kg)이 금빛 행진을 벌였다. 태권도에서는 일동초 나정운(여초 33kg), 광주체육중 문정민(여중 48kg)이 금빛 발차기를 선보였다.

전남은 은메달과 동메달 예상 선수들이 부진하면서 전체적으로 메달이 감소했다.

전남의 올해 예상 성적은 금 16개 은 23개 동 56개였다. 하지만 최종 성적은 금 15개 은 19개 동 23개로 집계됐다. 투기종목인 유도과 태권도에서 부진하면서 전체적인 메달 숫자가 줄었다.

레슬링과 육상은 효자종목답게 8개의 금메달이 나왔다.

육상 김종인(광양백운중 3년)이 멀리뛰기(7.05m)와 세단뛰기(14.06m)에서 개인최고기록으로 대회 2관왕을 차지했으며, 양궁에서도 지난 제48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초등부 3관왕을 달성했던 조한이(순천풍덕중 3년)가 2관왕에 등극했다.

레슬링에서는 전남체육중학교 3학년 재학생인 쌍둥이 형제 김동찬(G-65kg), 김동준(F-71kg)이 나란히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바둑에서는 한국배둑중학교 서지산, 이태섭, 최경서(이상 남자부), 악지우, 이서영, 임지우(이상 여자부)가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진화 기자

광주FC 이은뎌 K리그2 18R MVP

마이키·김현훈·정호연
'주간 베스트 11' 선정

광주FC 이은뎌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K리그2 18라운드 MVP에 선정됐다. 마이키, 정호연, 김현훈도 베스트11에 포함됐고 광주FC는 베스트팀과 베스트매치까지 차지했다.

이은뎌는 지난 달 28일 부산 아이파크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11분 두현석의 결승골을 돕는 등 공격의 활로를 뚫으며 팀의 3-0 승리를 견인했다. 공격수 부문에 오른 마이키는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전반 33분 추가골을 넣어 팀의 승리를 견인했다는 평가다. 정호연은 적극적인 압박과 수비 가



이은뎌

담 등 중원의 살림꾼 역할을 충실히 소화해냈고 김현훈은 적극적인 수비와 대인방어로 승리에 공을 세우면서 베스트11의 영예를 안았다. K리그2 18라운드 주간베스트 11은 마이키, 원기중(대전), 유강현(충남아산·이상 FW), 이은뎌, 정호연, 백성동(안양), 이학민(충남아산·이상 MF), 김현훈, 배수용(충남아산), 조유민(대전·이상 DF), 정민기(안양·GK)가 선정됐다. 베스트매치는 광주와 부산 경기가 뽑혔다. /조혜원 기자